

# 제426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5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4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 4
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 4
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 4
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 4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부 측 출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한시적인 국무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국제콩쿠르세계연맹 연례총회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개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일자로 박수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조은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만 조은희 위원님께서 금일 출장 중이신 관계로 인사말씀은 다음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자로 강유정 위원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손솔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손솔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솔 위원** 국회의원 승계로 입성을 하게 되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애써 주시고 고생해 주신 덕분에 국가의 큰 위기 상황을 국민들과 함께 헤쳐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 이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국정안정과 또 내란극복에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 기관들도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서 우리 문체위 소속의 문체부와 기관들도 많이 만나면서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준 조사관입니다.

김은희 주무관입니다.

양창성 주무관입니다.

이종훈 행정관입니다.

(인사)

박수도 다 쳐 주시고 고맙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박정하 위원** 사보임되신 위원님들 소개 다 주시고 직원분들 소개해 주시고 박수 쳤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해수부장관 지명 받은 것 우리도 박수 한번 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전재수** 고맙습니다. 박정하 간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1년 정도 문체위원장으로서 원활하게 우리 문체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가 가지고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도 우리 위원님들께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전재수** 예.

○**김승수 위원** 야당이 되고 처음 맞는 문체위 전체회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해수부장관 지명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2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서 문체위 전체회의가 소집이 됐습시다라는 일정을 확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2차 추경안이 어려운 민생 회복을 위해서 시급하게 편성·추진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할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추경안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엇그저께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왔고 아직 국회에서는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조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야당이 돼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들이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사업들이 잘 편성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한 뒤에 상임위가 열려야지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이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켜라 이런 어떻게 보면 다수 여당의 횡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특히 보면 문체위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없는데 사실은 이번에 30조 5000억이라는 적지 않은 2차 추경안이 편성됐습니다. 대부분의 그 예산들이 국채를 발행한 빚을 통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더더욱더 이 부분이 굉장히 알뜰하게 쓰여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체위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 사업들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오히려 문체위 사업 중에는 필요한 사업들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체위 사업조차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그런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일정을 잡을 때 있어서는, 물론 여야 간사께서 합의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회의를 하더라도 예결위가 심의를 하기 전에는 어차피 이 예산 자체가 통과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결위 구성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루이틀 정도는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체위뿐만이 아니고 국회의 여러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전반적인 국회 일정 속에서 아마 여야 간사 위원들께서 일정을 합의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정리를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0시14분)

○위원장 전재수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옹호성 문화체육관광부차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항상 보내 주시는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여력 보장을 통해 경기 진작을 도모하고 콘텐츠 기업 지원과 AI 투자 기반 확대를 통한 투자 촉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당초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은 7조 672억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한 지출은 7조 163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회계에 869억 44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00억 원, 영화발전기금에 271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에 235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민체육기금에 583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93억 원이 증액된 7조 25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먼저 K-콘텐츠 펀드출자 사업을 당초 2950억 원에서 문화계정 600억 원, 영화계정 250억 원 등 총 850억 원을 증액한 3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콘텐츠산업에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공급하고 한국 영화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기술 융합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중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당초 245억 원에서 300억 원을 증액한 5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중점 추진 사업 증액 편성을 위해 지출 감액도 병행하였습니다.

먼저 집행 부진 및 공사일정 지연에 따라 신기술 융합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중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 중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예산을 사업 지연에 따라 당초 155억 7000만 원에서 126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결정에 따라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을 당초 377억 2400만 원에서 103억 8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 중 공연예술쿠폰 사업 51억 원과 미술관 전시 관람료 지원 사업 49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 및 미술 전시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영화발전기금 사업입니다.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영화정책 지원 사업을 당초 164억 9600만 원에서 271억 증액된 43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 영화관람 기회를 확대하여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고 영화산업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입니다.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당초 818억 6000만 원에서 숙박할인권 지원 146억 7900만 원, 근로자 휴가 지원 89억 원을 반영하여 총 235억 7900만 원을 증액한 105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관광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당초 1312억 8200만 원에서 260억 증액된 157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 인구 급증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소득층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및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점 사업을 증액 편성하기 위해 지출 감액도 병행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스포츠기업 사업 연기 등으로 융자금 집행이 저조하여 당초 2480억 5700만 원에서 843억 2700만 원을 감액한 163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환경 속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소비·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고 콘텐츠산업의 투자 촉진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심의 의결되어 주요 정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건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체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중 K-콘텐츠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에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기획 프로젝트 3건을 선정하여 각 100억 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일정과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추경의 즉시성·시급성 요건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작자 등의 참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 중 공연예술쿠폰에 51억 원이 미술관 전시 관람료에 49억 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어 총 10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온라인 예매를 통한 할인권 발급 절차로 인해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으므로 현장 예매를 통한 할인권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1차관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방금 보고해 주시면서 올해 국내관광 지원 사업으로 증액을 해서 내수 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숙박쿠폰 사업이랑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제가 알기로 벌써 한 7년 가까이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도 국정감사에서 이 숙박쿠폰 사업이 과연 실효

성 있게 근로자들을 진짜 여행을, 휴가를 갈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냐라는 점을 많이 점검을 했었는데요. 추경에서 증액을 했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이 쿠폰 어떻게, 온라인 구매물 같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배현진 위원** 이게 폐쇄물 아닙니까? 일반 개인이 들어가서 쿠폰을 얻어서 사용하고 싶다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쿠폰 배정을 관련된 물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배정된 물량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행상품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정해진 할인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게 일단은 모든 사람이 아무렇게나 가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해서 제한된 기업의 범위 내에서 기업이 먼저 정부에 신청을 하면 기업이 10만 원 그리고 정부가 10만 원, 거기에 근로자가 20만 원을 보태 총 4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여행쿠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운행 기차 이런 것에 사용할 수도 있고 숙박쿠폰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는 실제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레저용품이라는 이름으로 밥그릇, 차량용 방향제, 내의, 신발, 의류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생활용품을 이 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이게 공무원들 복지물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체부가 대단히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휴가철에 휴가객들의 소비를 전 지방의 각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루 잘 배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온라인몰에서 밥그릇 사게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 뭔가 취지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레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등산용품이라든가 캠핑 같은 것을 할 때 필요한 도구 같은 것들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부분들의 사례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누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지금 숙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궤론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지난 2월에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서 국민의 55%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이것 지원하는데 싫다는 국민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만 이런 돈 출처가, 정부는 출처인데 이게 어디로 가서 쓰여지는지, 산산히 흩어지는 돈이 되는 건 싫다라는 국민들의 바람이시거든요.

제한된 예산으로 각 지방 곳곳의 골목상권에도 기여하고 지금 침체된 여행업계를 살리

자고 하는 정부의 추경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병병하게 밥그릇도 사고 내복도 사고 할 게 아니라 목적을 정확하게 좁혀서 문체부에서 진짜로 관광과 여행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배현진 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이 선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의 방식도 용이해질 수 있도록 재고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옹호성 차관님, 이번 2회 추경예산 중에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 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용산 어린이정원에 진행 중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작년 말 예산심사에서 토지오염 우려 등으로 꾸준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김건희표 전시 사업이라는 방증입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연예술 창·제작공간 조성 사업인 남산 자유총연맹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또 집행 부진인데다가 논란이 많은 사업이니 이 부분도 전액 삭감 부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본 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액되지 않은 잔여 예산 중에도 아직 계약 전이거나 지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불요불급 예산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추가 감액을 해야 합니다. 검토하시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금번에 영화산업의 경우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와 영화관람권 지원 사업 같은 간접 지원 방식보다 직접 지원을 위한 필요성이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김재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창작자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윤석열 정부에서 사멸해 버린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이나 중소제작사의 영화 착수를 위한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이런 것들 예산 증액이 시급한데요.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전 분야에 있어서 현재 한국 영화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원 위원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죄송합니다.

전 분야에 있어서 현재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옹호성 차관님, 앞에 말씀드린 감액 부분 검토하시고 별도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번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영화관람권 지원 사업 등 또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이나 중소제작사 영화 착수를 위한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 증액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옹호성 차관께 질문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야당 시절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청와대 재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이미 발표가 되었고 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사후 관리, 그다음에 청와대재단의 역할 변경이나 전환·청산 등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2분과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주요 업무 부분에 단 한 페이지밖에 없고 그나마도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공약이행계획서에는 아예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페이지 있는 내용도 다시 말해서 국민 화합 상징 공간 조성 추진 등 대략적인 내용만 있고 청와대재단과 관련한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청와대 복귀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비정상상을 정상화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부가 제 궤도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정부는 또 공직자는 어떤 정권에 따라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복무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대통령실과도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조율해야 하고 그런 다양한,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청와대재단의 역할 전환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 향후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도 국내관광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차 추경안에 두 가지 증액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숙박할인권 지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근로자 휴가 지원입니다. 내수 진작, 국내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취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제도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온라인을 통한 국내 숙박 상품 예약을 할 때 할인권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현재 숙박업체의 90% 이상이 OTA, 다시 말해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2022년 1월 대비 2025년 3월 기준으로 보면 OTA 5개 애플리케이션 기준 여행·숙박 관련 카드 결제 금액이 263%가 증가하는 등 OTA 중심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 문체부에 접수된 OTA 포함 여행사 관련 최근 6년간 관련 피해 통계를 보더라도 사업 중단 및 부도, 교통 연계 문제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 역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 OTA를 통한 거래에서 실태조사 실시 등 문체부의 적극적인 감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본 의원의 법률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온라인 관광 상품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사업 구조라든가 전체 산업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대비해서 정책이라든가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법안 개정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법안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솔 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예술 지원 사업 관련돼서입니다. 20년째 이어져 온 사업인데 올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국고 예산액이 80억이고 9월이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은 강사료, 운영비, 강사 처우개선비 중에 강사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국고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올해 10월 이후에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그래서 말씀하신 이유로 인해서 사업에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이미 기편성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불용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51억 원을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손솔 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완료를 하려면, 문체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까지 진행이 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이 51억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시·도교육청은 중단 없이 진행되기 위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국고가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손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금 이번에 민생 회복 추경인

데 예술강사분들이 전국에 4600여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자리 그리고 생계 문제 관련한 것도 민생 회복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이 민생 회복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또 올해 진행될 수 있는 시급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라보고 이번 추경예산에 잘 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PPT로는 따로 준비를 못 했는데 예술교육 사업이 초등학교에서는 전국에서 88.7%가 진행하고 있고 특수학교에서는 72.8%, 그래서 전체적으로 62.4%에서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2차 추경 사업 자료에서 지속적인 예술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도 높고 고등학교 자퇴율이 줄어든다는 미국의 국가예술기금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추경에서 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일자리 문제, 생계 문제를 호소하고 계시는 당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해서 복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저는 장미란 차관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전국의 생활체육지도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 어느 정도 증액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 말씀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고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용주가 문체부, 대한체육회 그리고 시도 및 기초체육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부당한 처우라든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떤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불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관계를 떠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수정돼야겠고 확실하게 명확해져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국민체육진흥기금 배분에 관련해서 현재 3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대부분이 체육시설 등 이런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정작 지도자 인건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처우개선에 관련해서는 그 사용이 아주 미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수정돼야 될 것 같고.

또 근무환경 및 무급노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들이 수업 준비물이라든지 주유비를 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장소의 안전이라든지 휴식 공간들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사고라든지 이런 불편함은 오롯이 지도자들이 다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예산 편차가 있어서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가 매우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생활체육지도자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4년도 8월자로 전면 시행됐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00%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그리고 지도용품비 등 시급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개인 간의 문제 그리고 안전성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서면 제출로 요청드렸던 부분 중에 52억 원이라는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52억이라는 증액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800여 명의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게 일일이 돌아가는 비용은 매우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서, 지금 현재 국민 민생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추경에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52억이라는 부분이 전부 증액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시급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봤을 때는 항상 소외되는 부분이 체육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체육 분야가 소외되기도 하지만 체육 분야를 케어해 주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처우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문체부 차원에서 조목조목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본 의원실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번 추경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 합의하면서 들어갔던 지역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가져온 안에 여야 합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12억으로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이 전체 감액되는 과정에서 날아갔고 1차 추경에 안 들어왔고 이번 2차 추경에 좀 들어오기를 기대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립미술관 권역별 설립의 근거도 법적으로 마련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문화 인프라 확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요구가 너무 높습니다. 문체부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도 지역 다니면, 특히 경제적 어려움도 큼니다만 문화적 수요, 인프라에 대한 갈증, 갈망이 너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은 정책의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 저희가 연말에 합의했던 지역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비 반영을 이번 추경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여야 합의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법률안도 이미 완비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관님,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저희가 요청했던 예산들이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위에서 논의하시는 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질의도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전재수 예.

○이기현 위원 5월 9일입니다. 올해지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이지요. 대선 직전에 국립 문화공간재단이라는 곳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우상일이라는 분이 임명됐습니다. 우상일이라는 분은 전 문체부 예술국장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퇴직하신 분인데 이분이 새로 설립 되는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로 임명이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당시 저희가 알박기 논란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문체부 내에서는 좀 힘든 일이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기대가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행정부처가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인사들에 대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몇 번 표명했었고 이 상임위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냥 우상일이라는 분은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우상일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분은 알박기 논란이…… 예전에 있었던, 2017년이지요. 박근혜정부 마지막에 예술국장 시절에 조운선 문체부장관에게 ‘문화예술계와 관련된 리스트를 만들어 뒀습니다’라고 보고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징계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14년도에 체육국장 시절에는 정윤희 국정농단 의혹 공방이 오가던 문체위 회의에서 쪽지를 썼는데, 그 당시 문체부2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아가야 한다’라는 메모를 전달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각돼서 국회를 모독했다고 큰 질타를 받았던 분이고.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랜드코리아레저 경영본부장으로 내정됐다가 노조의 강력한 반발 또 국회 반발로 인해서 무산됐던 분인데 이렇게 문제의 인물, 또 이분이 23년도에는 문화자유행동이라는 문화예술단체의 사무총장직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아무리 봐도 정치적 성향이 농후했던 분인데 그리고 국회를 모독했던 분인데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분이고 징계까지 받은 분인데 이러한 분을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었던 문화부장관인 유인촌 장관께서 대선 직전에 이렇게 새로운 신설 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말씀 주실 내용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먼저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문체부 소속기관 중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공사라든가 콘텐츠진흥원장과 같은 이러한 주요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의 임명 과정을 중간에 보류를 했던 그런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국립문화공간재단 관련해서는 이 기관이 완성된 기관으로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현재 주요 업무가 마포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건물을 짓는 부분에 사실 주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또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공기일을 따지게 되면 대략 한 내년 2026년 말 정도나 돼야 건물이 완공이 될 것이고 빠르면 2027년 상반기 어찌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여기의 기능적인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은 주요 기관과 협의하는 문제라든가 재원을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마포구청 쪽에서 주차장 부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부터 사실 실무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이 부분을 맡기기 위해서 실무 직원들 선발 절차가 2025년 2월부터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파트의 조금 더 기능적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를 저희가 물색을 좀 했었고.

그리고 우상일 국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분이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공간디자인문화과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창의한국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 문화 비전이 만들어졌고 그 내용 중에 당인리에 관한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기획을 했던 담당 과장이셨었고요. 그다음에 2015~16년에 예술정책관으로 재직 시에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운영계획을 수립을 했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동안에 쌓아 왔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기관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전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유로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에 문화공간재단에서 예술감독 선임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술감독이 전담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그런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인사는 그런 것이지요. 인사를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대선 직전에 인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문제 제기도 하기 전에 이미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사후적으로 이 문제의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정치적 편향이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도 그랬고 퇴직한 이후에도 극우 보수단체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분을 대선 직전에 이러한 새로 신설되는 재단의 업무를 맡기는 건 그가 공직자로서 예전에 그런 실무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 내에서 이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계속 사후적 관리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인사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를 출신 김승수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대부분의 재원을 빚을 내서 이렇게 마련한 추경인 만큼 정말 알뜰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낭비성 또 소모성 이렇게 지금 편성된 사업들이 여러 군데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우리 여행업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고, 그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가지고 아직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아주 많은 재원이 주로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

로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채 탕감과 관련해 가지고 7년 이상 빚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무려 113만 명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10만 명에 대해서는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돈만 해도 1조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저번에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서 광주·전남의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또 산불 피해로 영남 지방도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여기에 해 준 정부 대책이라고는 채무 1년 상환 유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시급하고 필요한 그런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곳이 이런 여행업계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런 데는 거의 지원이 없단 말이지요.

또 앞서 손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예술강사,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당장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인건비조차 지원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작년에 문체위에서 128억 원 증액시켜서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결위에서 민주당에서 삭감안만 가지고 단독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추경에, 한 117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의 최저생계 위협은 우리가 좀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새로 편성한 사업 중에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편성됐습니다마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로 편성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또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군데도 협의된 지자체가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협의를 안 했으면서도 그냥 담당자가 거짓말까지, 협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정정하는 그런 참 우스운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게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냐? 물론 어르신들이 지금 이런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지방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요조사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이, 체육시설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나 비수도권 지역에는 지원이 되더라도 이용할 스포츠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게 결제하는 것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제로페이 결제율은 거의 10%도 안 되는데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제로페이로 결제시킬 수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계획 없이 집행이 되다 보면 실효행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로페이 결제 대상 업소들이 스포츠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수영장과 태권도 시설 정도가 대부분인데 나머지는 스포츠시설과 관련 없는 시설들이 주로 제로페이 결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태권도 도장 가서 뭐 배우겠습니까? 수영은 그래도 어르

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의 하나인데 5만 원 지원해 가지고는 공공수영장조차도 한 달 수강료도 안 됩니다. 결국은 돈을 나눠 줘 봐야 어르신들이 쓸 데를 찾지 못하거나 쓰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불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설계를 하려면 꼭 그런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이게 좀 범위를 확대해서 문화·예술·체육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나마 좀 인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맞춤형으로 선호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상을 넓힌다든지, 치밀한 그런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없거나 또 이것 일회성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한 달 정도 이용하면 이 돈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할인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또 할인하거나 경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자체 예산으로 할인·경감하는 것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를 좀 치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화 지원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 못 하고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영화산업인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원 방식에 있어서 지금 이것도 쿠폰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내 영화계가 거의 지금 다 파산 직전입니다.

제작 편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제작 편수가 16편에 불과합니다. 딱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 뭐냐? 영화쿠폰만 줘서 지원하면 극장은 일시적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국내 영화, 국외 영화 구분 없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파생효과가 있도록 하려면 국내 영화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면 국내 영화 제작한 제작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제작비에 대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해서 재제작이 가고 그렇게 해서 영화 생태계가 살아나는 건데 국내 영화, 국외 영화…… 국내 영화 자체는 작년, 재작년에 제작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 영화에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국내 영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설계를 다시 재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앞서 배현진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숙박 지원 또 근로자 하계휴가 지원, 저번에 문체위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부정 사용, 부당 사용 또 청소년 불법 사용.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청소년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또 실제 중소 여행업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OTA, 대형 OTA 업체에만 어떻게 보면 손해가 돌아가는 그런 부작용 아닌, 어떻게 보면 당초 목적과 달리 결과가 나타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전혀 없이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OTA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선 여행업계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쿠폰을 사용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OTA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조금 더 차등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 숙박업소에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치밀하고 꼼꼼한 설계를 통해서 아까운 국민 세금, 특히 빚을 얻어서 이번에 만든 그 추경안이 더 실질적으로 맞춤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먼저 앞서 말씀하셨던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여행업계에 대한 부채 탕감이라든가 관련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소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방향을 설정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쪽의 참여 문제에 관련해서 6월 23일 날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고 7월 달에 시도 문화체육국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또 추경이다 보니까는 조금 준비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포츠 쪽만이 아니라 공연이나 영화 쪽에 공통돼서 저희가 준비를, 좀 우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그 시설의 편재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농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라든가 어르신들이 온라인 예매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직접 할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전시라든가 이쪽 다른 영역에서는 방문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지역 내에서의 축제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도 이런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좀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영화 쪽에서의 차등 예매 문제는 이거는 그쪽, 저희가 예매 사이트하고 영화계 쪽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이 있을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 여하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집행률을 제고하면서 맞춤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고요.

여행업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재기 지원 예산 1조 4000억 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성실히복프로그램의 이자 지원과 우대금리가 있는데 이자 지원은 1%의 이자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를 탕감해 준다거나 90% 원금 감면해 주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적은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라도 여행·관광 업종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최대한 문체부에서 좀 역할을 하셔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업종 또 여행·관광 업종 관련 그런 혜택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장미란 차관님, 작년 7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조계원 위원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과연 이 출국납부금을 인하해서 실질적인 민생효과로 이어진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출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출국납부금을 인하해서 오히려 관광재정의 기반만 약화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한쪽에서는 또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출국세를 5배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관광진흥기금 예산도 출국납부금을 인하함에 따라서 줄었고요. 대폭 줄었고 앞으로 2026년에도 더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2024년에도 한국의 관광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출국납부금을 오히려 인상해도 부족할 판에, 관광진흥기금을 늘려 나가도 부족할 판에 이것을 인하했어요. 이것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 사실은 관광세를 인상하는 것이, 최근 동향이 그러하고요. 우리가 외국에서 지불하는 관광세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최대 12배 차이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출국납부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재원이 확충이 된다고 하면 관광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안 계시니까 용호성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성동규 상임감사가 임명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자진 사임을 했더라고요. 사임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원면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상임감사가 사임 전에 3월 6일부터 13일까지 LA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LA 출장 일정이 보통은 몇 달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돼야 되는데 불과 출장 가기 거의 전날 급히 일정을 잡아 가지고 출장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출장에서 소화한 일정에 대해서도 의원실에서 질의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래서 단순한 업무용 출장이 아니라 외유성 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원실에서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임감사가 출장에서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원래 계획된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곳 종합감사 업무는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저희가 현재까지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콘진원으로부터 현지 출장을 간 것이 LA 비즈니스센터 점검하고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한국공동관 점검을 위해서 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상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지적의 대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갈 것이고 필요한 경우 콘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장 관련된 내용의 기획 과정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쨌든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사시스템에서 이러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조계원 위원** 아울러서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대표와 관련된 성추행 사건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들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거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관련해서 노조에서 관련 성명서를 지난 5월 달에 성명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 결과 후속조치로서 뉴서울CC에서 자체감사를 일단 5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어서 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점검 요청을 했고 예술위원회에서는 실태점검을 한 이후에 자체감사 계획을 세워서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정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

○**조계원 위원** 감사를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일단 감사…… 거기 현재 문화예술위원회 자회사 성격으로……

○**조계원 위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임명한 대표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임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게, 공정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술위원회에서……

○**조계원 위원** 그리고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이 성추행 사실이 발생한 때는 2025년 3월 5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바로 피해 당사자가 담당 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려 두 달이 넘어서 이 사건들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구요. 공론화되고 나서도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들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의 감사로서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체부 차원에서 직접 감사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일단 일차적으로 예술위에 저희가 감사 및 실태점검 요청을 해 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용이 미진하다거나 추가적인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혹은 법적 조치까지 필요한 경우의 상황이라면 그에 적절한 후속대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그 외에 사법적인 조치에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에 감사를 최대한 빨리 촉구하고요. 추가, 감사가 미진한 경우에 대해서는 문체부 차원에서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상황을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조계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더불어 민주당 차원에서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위가 구성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조계원 위원 거기서 제가 그 특위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인사를 강행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22명의 알박기 인사를 강행했고요. 그중에 우리 문체부와 관련해서 보면 한국관광공사와 콘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박기 인사 특위에서 강력하게 저지 성명과 기자회견을 발표했고 중단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산진흥원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장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를 강행했더라고요.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장관님이 안 오셔서…… 문체부장관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여기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논의가 돼 왔습니다마는 예술인 복지 관련해서 공제조합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슈가 굉장히 많이 산적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관장을 공식으로 두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행정적인 서포트가 가능한 그런 기관장을 선임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저희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전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사혁신처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중간에 중단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문체부 예술정책관 출신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콘텐츠정책관 출신이기도 하고요.

임명 날짜를 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에는 4월 25일이에요. 불과 한 달 반 전인데 그 한 달 반 사이에 천지개벽이 일어납니까? 공공기관이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집행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데 굳이 인사를 강행한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공공기관 인사라는 게 저희가 늘 해 보다 보면 이게……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한 달 반인데 그 사이에 굳이 인사를 강행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식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조계원 위원 아니, 대통령선거 조기 대선 일정은 이미 6월 3일로 나와 있었잖아요. 22개 기관에 대해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 22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중에 5개가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이에요. 장관님이 안 나오셔서 가지고 지금 용 차관님이 답변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지금 현재 임명된 분들이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많이 쌓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정책 기조에 부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보은성 인사가 아니고요? 정책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김상욱 국장의 경우에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담당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성과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계원 위원 아니, 담당 국장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담보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 평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진행한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공모 절차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계원 위원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저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아시아문화재단 사장의 경우에도 김명규 사장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조계원 위원 유인촌 장관님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 대표 출신이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번의 인사들은 실제로 공공기관의 발전과 미래전략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은성 인사, 알박기 인사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의심스러운 활동을 굳이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강행을 했냐 이거지요.

강행한 사유와 이유, 근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의원실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들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조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임오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임오경 위원 앞서 용호성 차관님께서 일반 정부안에는 학교예술강사 추정 51억 반영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정부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지금 포함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포함되셨다고 하셔서 다시 정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안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하고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었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정정할 시간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청와대, 저희가 감액하고 남은 273억 원에 대해서 조성된 구체적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일 대표는 임명을 하

지 마셨어야지요. 저희가 알박기, 알박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문화공간재단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지금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요—아직 준비 과정이고 본격적으로 이것에 관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파견 나가서 관리감독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표를 먼저 임명하고…… 지금 할 일도 없는데 왜 낭비하십니까? 안정세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 임명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되는 사람을 이렇게 준비 과정 단계에서 임명을 먼저 했느냐, 저는 그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장관이 임명 권한이 있더라도요. 차관님한테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님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지금 준비 과정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 처리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나는 이 임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가서 보고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 관련해서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온라인 예매처다 보니까 이게 차별이 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한 사람당 1인 2매를 구매하게 되어 있더라도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 예매처를 사용할 경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지금 1인 2매라서, 공연하고 영화 쪽이 조금 다른데 보통 4~5개 정도의 예매처를 고려하고 있고 그렇다면 1인이 최대한 구매할 수 있는 게 10매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1인 2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쏠리지 않나요?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 부분의 경우에 근본적인 대책은 예매처의 예매 통합전산망을 서로 연동해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곱하기 4~5가 돼서 1인당 최대 8~10매 정도까지 예매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취지는……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취지가 좋은데 결국 이것을 누구에게, 어떠한 좋은 취지가 어떤 사람에게 지금 편향돼서 가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디지털 관련해서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것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매 관련해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미란 차관에게 질의할게요.

예술인 강사는 지금 문체부에서 관리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일정 부분……

○임오경 위원 스포츠강사는요? 어디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됐지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스포츠강사요?

○임오경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지금 담당 부처가……

○임오경 위원 지금까지는 어느 부처에서 해 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문체부도 일정, 작년까지……

○임오경 위원 어느 부처에서 지금까지 해 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지금까지요?

○임오경 위원 예. 그전에는 어디에서 해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교육부……

○임오경 위원 스포츠강사 예산 관련해서 모든 걸 교육부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아니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문체부에서 했지요? 그래서 장미란 차관이 들어오고 나서 이것 교육부로 이관됐네요.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 다 일원화시켜서 2개를 다 교육부로 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 가 있는 것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예산이랑 다시 문체부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포츠강사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그쪽으로 이관되는 게 결정이 났었고, 또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왔을 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술강사와 스포츠강사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것들이 좀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용호성 차관님, 이것은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일원화가 큰 방향에서는 맞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주체를 이관하는 것들 검토를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하고 연동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일원화를 시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틀에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상준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임오경 위원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영화 중에 400만 관객을 돌파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한 편도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관객을 늘리기 위해서 쿠폰 발행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한상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 지금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이 문제점을 연구·

검토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이것 연구하셔서 결과물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한 번도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있습니다. OTT가 영화나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관련돼서도 지금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현장의 얘기, 이 급격한 변화에 관련돼서 연구를 한번 맡기셔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장미란 차관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스포츠기업 사업 연기 등으로 융자금 집행이 저조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843억 27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풀리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아마 경기침체 등에 따라서 스포츠기업이 사업을 연기하고 포기가 증가한 추세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됐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2023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로 스포츠산업 환경은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지금 거의 70% 도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산업도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침체로 인해서 스포츠 현장이 어두운 터널 안에 있었지요. 그런데 2023년부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스포츠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산업 금융지원금은 감액을 시키고 있다? 이게 지금 엇박자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상당히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형주 이사장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임오경 위원** 지금까지 역대 국회에서 이렇게 기관장으로 해서 엘리트 출신 아닌 엘리트 출신들이 가장 많이 포진됐다고 현장에서 그러합니다. 듣고 계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임오경 위원** 두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이러한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 같은 것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당연히 저희 공단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공단에서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미집행된 부분의 요인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코로나 상황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엘리트체육이 약간 저조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산업도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닌가, 또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스포츠산업의 정체성 정립이 좀 덜 됐다는 생각도 함께 해 봤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미란 차관 계시고 이사장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경기인 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직원들 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종목단체 전체.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한번 참석을 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200만 원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대관료가 700만 원이더라고요. 체육진흥공단에서 대관료를 700만 원 받고 200만 원 후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체육 현장의 주인은 직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미란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차관님이라도, 이사장님이라도 누군가는 나가서 격려해 주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을 그렇게 소홀하게 대하시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앉아 계시는 차관님이나 이사장님이 일하신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이 영웅입니다.

앞으로는 그 직원들이 밑에서 일을 할 때 좀 더 찾아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복지도 한번 챙겨 주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언론의 현재가 굉장히 암담합니다. 그 기능에 비해서 우리가 ‘국가가 그냥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내팽개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언론은 지역 소식통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또 다양성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공공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사업을 통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박수현 위원** 그런데 그 지역언론 중에 방송과 인터넷도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지역신문에 관해서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현황을 보면 현실이 녹록지가 않고 정부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출범해서 연간 지원금이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25년 현재 85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알지만 2024년, 25년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국고 출연은 전혀 없이 기금 출연으로만 85억 원씩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성과 더 두터운 지역언론의 지원 그리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2005년 기금 설립 당시 수준인 250억 원 수준으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이 부분은 기금 자체 문제와 더불어서 사업 개발에 관한 이슈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제가 내용을 봤더니 말씀하신 기간에 200억이 넘는 사업이 현재는 한 80억 정도 규모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측면도 있지만 아울러서 말하자면 적합한 사업 자체가 발굴이 덜됐고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는 문제가 지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어떤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토론이든 연구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업 발굴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논리가 있어야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 출연이든 기금 증액이든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수현 위원 차관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결과적으로 사업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 희망도 없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현장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개발해 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에요. 사업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기금 자체를 줄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 이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업 개발이 되고 의욕을 가지고 지역신문이 그런 지역문화의 창달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해 내는 정책, 독려하는 정책,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언론재단에 지역언론팀이 있는데 바로 이 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6명뿐이고 이게 또 순환직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신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는 진짜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 실천해야 된다. 이 지역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언론의 기능을 넘어서 지금 지역 소멸 시대 아닙니까? 그 지역 소멸 시대에 각 지방은, 지역은 사활을 건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지역언론이 사실은 각종 사업 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큼니다.

제가 강조하듯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의 꽃밭이 한 가지 색깔과 향기를 가진 그런 꽃으로만 가득 찬 대한민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 색깔과 향기와 크기가 다른 다양한 꽃들로 가득 찬 그런 꽃밭일수록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철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언론사들이 그런 독특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유통시키고 또 세계적으로 글로벌화함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마련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이번에 지역신문발전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그런 공익적 역할을 평가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고 지원의, 국가 지원의 당위성을 우리가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식을 우리가 새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기금의 확충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법률 개정안 제출 취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워 볼 수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있고 7월 1일 화요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박수현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차관님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소속 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 경위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 위원(14인)

김승수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손 솔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조계원 진종오

#### ○청가 위원(2인)

정연욱 조은희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원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제2차관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체육국장 강수상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송시경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보고사항】

○위원 선임

교섭단체	위원명	선임일	비고
더불어민주당	손 술	2025. 6. 12.	.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수민	조은희	국민의힘	2025. 5. 2.

○의안 회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5)

3월 5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4)

이상 2건 3월 7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7)

**무용진흥법안**

(2025. 3. 7.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0)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3. 7.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7)

이상 3건 3월 10일 회부됨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3. 11. 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5)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2025. 3. 11. 위성곤 의원 등 33인 발의)(의안번호 2208799)

이상 2건 3월 12일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4)

이상 2건 3월 14일 회부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3)

3월 18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2)

이상 5건 3월 19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4)

이상 4건 3월 20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6)

3월 21일 회부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4)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4)

이상 4건 3월 24일 회부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4.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2)

이상 3건 3월 25일 회부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1)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8)

이상 3건 3월 26일 회부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0)

이상 2건 3월 27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9)

3월 28일 회부됨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0)

3월 31일 회부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2)

4월 2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8)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9)

이상 3건 4월 4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8)

4월 8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8.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7)

4월 9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4. 10.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3)

이상 3건 4월 11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9)

이상 2건 4월 15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4)

이상 2건 4월 17일 회부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1)

이상 2건 4월 18일 회부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7)

4월 22일 회부됨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2025. 4. 16. 윤준병 의원 등 18인 발의)(의안번호 2209879)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5. 4. 22.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8)

이상 3건 4월 23일 회부됨

**궁도 진흥법안**

(2025. 4. 24.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1)

4월 25일 회부됨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2025. 4. 25.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5)

이상 3건 4월 28일 회부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0)

이상 4건 4월 29일 회부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0)

이상 4건 5월 1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2)

5월 2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7)

이상 2건 5월 7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4)

이상 2건 5월 12일 회부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5)

5월 13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5)

5월 16일 회부됨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6)

5월 21일 회부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2.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1)

5월 23일 회부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7.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9)

5월 28일 회부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8.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4)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8.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5)

이상 2건 5월 29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9. 김재원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9.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1)

이상 2건 5월 30일 회부됨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이상 2건 6월 2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2025. 6. 11.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1)

이상 5건 6월 12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3)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6. 12.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6)

이상 3건 6월 13일 회부됨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2)

이상 3건 6월 16일 회부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7)

6월 17일 회부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8)

이상 3건 6월 18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9.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8)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2025. 6. 19.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5)

이상 2건 6월 20일 회부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5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5)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6)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7)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8)

이상 6건 6월 23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1)

6월 2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4.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3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9)

3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3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21.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5)

3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5)

4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4. 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4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4. 1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5)

4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5. 1.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8)

5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2025. 6. 2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7)

6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2)

6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의안 철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9.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1)

6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이상 2건 6월 2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5)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6)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7)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8)

이상 5건 6월 23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 ○청원 회부

**내친구 김정은이라는 책의 출판 및 유통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

(2025. 4. 1. 임지혜 외 50,11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8)

4월 2일 회부됨

#### ○보고서 송부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2025. 5. 30.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2025. 5. 30. 감사원장 제출)

**2025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25. 5. 30.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 5. 30. 정부 제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 5. 30. 정부 제출)

이상 5건 6월 2일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4호	2025. 2. 2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298호	2025. 2. 2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83호	2025. 2. 25.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35299호	2025. 2. 25.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시행령	제35344호	2025. 2. 27.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시행규칙	제585호	2025. 2. 28.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586호	2025. 3. 7.	국가유산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87호	2025. 3. 12.	국가유산청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381호	2025. 3. 1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5382호	2025. 3. 1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9호	2025. 3. 14.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9호	2025. 3. 1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9호	2025. 3. 14.	문화체육관광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9호	2025. 3. 14.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9호	2025. 3. 14.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9호	2025. 3. 14.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0호	2025. 3. 20.	국가유산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91호	2025. 3. 2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92호	2025. 3. 21.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5호	2025. 4. 2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44호	2025. 4. 15.	국가유산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433호	2025. 4. 8.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제593호	2025. 4. 14.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시행령	제35443호	2025. 4. 15.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4호	2025. 4. 1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459호	2025. 4. 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464호	2025. 4. 22.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5460호	2025. 4. 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5462호	2025. 4. 22.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63호	2025. 4. 22.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5461호	2025. 4. 22.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시행규칙	제597호	2025. 4. 23.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6호	2025. 4. 2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9호	2025. 4. 23.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35479호	2025. 4. 29.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제35496호	2025. 5. 7.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제35496호	2025. 5. 7.	문화체육관광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2호	2025. 5. 20.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522호	2025. 5. 20.	국가유산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0호	2025. 5. 1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1호	2025. 5. 1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3호	2025. 5. 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	2025. 6. 5.	국가유산청

## ○통지

## 국회의원 궐원 통지

의원명	교섭단체	선거구	사유	연월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직	2025. 6. 4.

## 의원 당적 변경 통지

의원명	선거구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손 솔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2025. 6. 16.

##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3)

2025년 4월 24일 철회 통지됨